

세계 주요 타이어 메이커들의 2004년 실적 및 향후 설비투자 계획

1. 2004년 타이어 메이커별 실적 및 순위

세계 타이어 업계의 매출은 몇 년간 견고하지만 제약된 성장을 보여 오다가 04년도에 와서 판매량 증가와 가격 상승 그리고 환율의 영향으로 15%의 큰 폭 상승을 보였다. 04년 세계의 타이어 제조사의 총 추정 매출액은 9,200억\$로 증가했다. 세계 타이어 업체들 중에는 매출액이 백억 달러대를 기록하고 있는 수십 개의 업체가 있으며, 이들 매출액은 세계 전체 매출액의 거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미쉐린사는 04년에 매출액 1,790억\$로 단지 2%의 성장을 기록했지만, 일본의 브리지스톤사와 약 10억\$ 차이로 4년 연속 부동의 1위를 고수했다. 지난해 5%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브리지스톤사는 미쉐린사와의 차이를 좁혔는데, 브리지스톤사가 40%지분을 가지고 있는 터키의

Brisa Bridgestone Sabanci Tire Mfg사의 매출까지 실적에 반영된다면 미쉐린과의 갭은 더욱더 작아질 것이다. Brisa 사는 자체 매출액이 3억 7,560만\$에 이르는 세계 26위에 랭크되어 있는 회사이다.

3위를 마크한 굿이어사는 전년대비 21%가 성장한 1,520억\$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중 12억\$는 굿이어사의 신차용 타이어 휠 마운팅 합작회사인 South Pacific Tyres Ltd와 T&WA Inc의 매출이 처음으로 굿이어사의 실적에 반영된 것이다.

04년도 매출액 기준 각사의 랭킹을 보면 03년도와 비교할 때 상위 11위까지의 순위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으며, 콘티넨탈사가 4위, 피레리사가 5위, 일본의 수미토모 고무사와 요코하마사가 각각 6, 7위를 마크했다. 그리고 쿠파사가 그 뒤를 따랐으며, 한국의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는 쿠파사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의 중국 자회사들은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으며 모회사의 연간매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03년 14위였던 Grandtour Tyre Pte. Ltd는 04년에 12위로 발돋움했다. 이 회사는 6개의 별개 중국 타이어 제조사의 싱가포르 지주회사로 총 매출액이 처음으로 10억\$대를 기록했다.

〈 2004년 세계 타이어 제조사별 매출액 순위 〉

(단위 : 백만\$ / %)

순위		회사명	2004		2003	
04	03		타이어 부문 매출	총매출 중 타이어 매출 비중	타이어 부문 매출	총매출 중 타이어 매출 비중
1	1	미쉐린	17,888.2	91.7	16,150.0	93.0
2	2	브리지스톤	16,750.0	75.0	14,800.0	75.0
3	3	굿이어	15,150.0	82.5	13,600.0	86.0
4	4	콘티넨탈	6,100.0	39.0	5,600.0	43.0
5	5	피레리	4,043.5	49.5	3,255.2	43.2
6	6	수미토모	3,150.0	75.7	2,922.2	75.2
7	7	요코하마	2,863.8	73.3	2,552.0	71.8
8	8	쿠파	2,081.6	100.0	1,872.9	53.3

1) 자회사 실적 포함 2) 연 평균환율 기준

2. 05년 상반기 각사 실적

급격한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04년 세계 타이어 업계의 매출은 큰 타격을 입었으며, 그 외 다른 요소들 또한 05년 최근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요 타이어 메이커들의 05년 상반기 실적은 수익면에서는 각사별로 손익이 같렸지만 매출은 전체적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피래리사의 경우 전년대비 13.1%의 높은 증가율로 27억 5,000\$를 기록했고, 미쉐린사는 0.1% 소폭 상승한 90억 3,000\$, 브리지스톤사는 8.9% 증가한 114억\$로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

수익면에선 주요 메이커들의 실적이 전체적으로 미미했으며 이 같은 경향은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05년 상반기에 브리지스톤사의 순이익은 거의 두배로 상승한 9억 1,950만\$를 기록했지만, 수익의 대부분이 브리지스톤 일본의 퇴직 연금제 변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브리지스톤 미국은 매출에서 10.9% 상승한 49억 4,000만\$를 기록하면서 23.9% 상승한 1억 7,360만\$의 운영이익을 보였으며, 판매량 면에서 보면 일본의 브리지스톤 본사와 거의 비슷한 실적을 거두었다. 하지만 브리지스톤사는 원자재 비용 상승이 수익에 영향을 주고 있어 하반기에는 힘든 사업 여건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주들에게 언질하고 있다.

순이익에서 5.5% 상승한 4억 6,500만 달러를 기록한 미쉐린사는 원자재 비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운영 이익이 전년도를 초과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비용절감과 가격 전략으로 전년수준의 운영이익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매출액에서 3.6%의 감소와 04년 상반기보다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난 원재료 비용에서의 상승을 상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동사는 원자재 비용상승은 연말까지 14~15%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굿이어사 또한 생산성 향상 전략과 세 번의 가격 인상을 통해 원재료 비용 상승을 상쇄시키면서, 비슷한 행보를 보였다. 05년 2/4분기에 5회 연속해서 분기 수익을 기록한 동사는 05년 상반기에 1억 3,700만\$의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동기 4,800만\$ 손실과 비교하면 크게 향상된 것이다. 동사의 05년 상반기 매출액은 97억 6,000만\$였으며, 전년동기 88억 2,000과 비교하여 상승했다.

동사는 높은 부채 부담과 연금제 문제뿐만 아니라 원재료 비용 상승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원재료 가격 상승률이 연말까지 10% 정도 될 것으로 예상했다. 판매율이 우수한 신제품, 현금 유동성, 타이어 당 높은 수익성 등과 같은 요인은 동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파사 역시 원재료 가격상승 문제에 처해있으나 올 상반기 동사의 주된 문제는 올봄에 있었던 Texarkana, Arkansas 공장에서의 노사분규였다. 상반기에 동사는 167만\$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지난해 5,830만\$의 수익에서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 매출은 9억 8,920만\$에서 10억 2,000만\$로 3.6% 상승을 보였는데, 이는 가격과 제품 다각화에서의 향상에 의한 것인데, 수요 감소와 노사분규에 따른 업무중단으로 인한 판매량 감소는 제품 다각화의 이득을 상쇄시켰다.

쿠파사의 Thomas Dattilo 회장에 따르면, 일단 노사분규가 지난 후 동사의 실적은 좋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진보는 올 6월에 가시화되었으나, 4, 5월의 업무중단의 큰 영향을 상쇄할 만큼 충분치 않았다고 한다.

콘티넨탈사는 북미에서 지속적으로 고군분투 하고 있으나 4/4분기까지 손익차이 제로라는 초기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동사의 매출은 10.6% 상승한 82억\$를 기록했고 순수익은 59.3%가 증가한 4억 9,440

만\$를 기록했다. 그러나 미국 승용차와 경트럭 타이어 부문에서는 하락세를 보였다.

수미토모 고무사의 전체 영업이익은 18.7%가 상승한 1억 8,640만\$였으며, 타이어 부문의 호조에 힘입어 매출은 6.3% 증가한 20억 9,000만\$를 기록했다. 타이어 부문은 매출이 15억 8,000만\$, 9.8%의 상승을 보이면서 영업이익은 44.8% 증가한 1억 3,290만\$을 기록했다. 수미토모 북미사는 2억 5,220만\$의 향상된 매출액을 기록했는데, 이는 동사 전체 매출액의 12.1%에 해당된다.

3. 타이어 공장 설비 투자 계획

세계 주요 타이어제조사들은 지난 12개월간(04.9월~05.8월) 거의 44억\$의 타이어 공장에 자본을 투자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브리지스톤은 설비 확대 프로젝트에 전례 없이 20억\$를 투자한다고 공표하면서 가장 큰 투자액을 보였다. 언급된 타이어사들의 투자액 44억\$은 03~04년에 발표된 액수의 거의 두배이며, 96~97년까지의 투자 추정액 36억\$ 이후 최고이다. 게다가, 최근 한국 타이어가 동유럽에 5억~6억\$의 투자 예산을 책정한 것까지 고려하면, 세계 전체 타이어 산업 투자는 거의 50억\$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발표된 계획의 절반이 아시아지역에 투자되며, 이 중 약 12억\$ 정도가 중국에 투자될 것이다. 한국타이어의 투자를 제외하고 약 1억\$이 동유럽으로의 프로젝트에 계획되어 있으며, 브라질에 6억 8,000만\$정도 투자될 예정이다.

대조적으로, 서유럽지역에서는 단지 하나의 설비확대 계획이 있었고 미국 또는 캐나다지역은 전무하다. 브리지스톤 미국의 2억 2,000만\$ 승용차용 타이어 공장 멕시코 투자계획이 북미지역에서의 유일한 프로젝트이다.

전체 투자계획을 일괄하면, 보통 향후 2~3년 내에 가동이 개시될 것이며, 이러한 설비에서 일일 기준으로 거의

15만개의 타이어, 다시 말하면 연간 5,000만개 이상의 타이어생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쉐린사의 투자 규모는 6억 1,700만\$ 정도로 브리지스톤사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폭넓은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다. 피렐리사 또한 4개의 설비 확대 프로젝트를 발표했으며 투자 규모는 4억 3,450만\$ 정도이다. 요코하마사와 굿이어사는 각각 2개의 투자계획에 각각 2억 200만\$, 1억 3,800만\$ 정도의 투자액채정을 발표했다.

이러한 자본 투자 매트릭스에서 공급 부족을 보이고 있는 OTR 타이어 부분 투자가 두드러지는데, 주요 타이어 제조사들의 신규 OTR 타이어 공장과 설비확대에 있어서의 투자액은 6억 5,000만\$ 정도로 나타났다.

연간 기준 자본 투자 측면에서는, 세계 최대 타이어 메이커들의 04년 평균 매출의 6.1%를 다시 재투자 했는데 이는 03년 약 5.5%에서 상승한 것이다.

각 사별 주요 프로젝트 (04. 8월 이후 발표 취함)

❖ 브리지스톤사

- 08년 상반기까지 태국 Chonburi 설비 (트럭·버스용 타이어 공장, 일간 7,500개) 확대, 태국 Rayong 스틸코드 설비 확대 포함, 1억 5,900만\$ 투자
- 중국 Guangdong Province, Huizhou에 스틸코드 공장(08년 말 까지 일간 70톤), 1억\$
- 일본 시모노세키, 07년초까지 대규모 off-the-road 래디알 타이어 설비 20% 증강,

일본 Saga에서의 부지에서 5% 스틸 코드 시설 확대 및 Hofu 에서의 타이어 부품을 위한 설비확충 포함, 1억 5,500만\$ 책정

- 헝가리 Tatabanya 근처 고성능 승용차용 타이어와 경트럭용 타이어 공장(BIRD 생산시스템 기반, 08년 생산 시작, 일간 8,000개 최초 생산능력), 2억 4,300만\$ 책정
- 일본 Huizhou에서 래디알 트럭·버스용 타이어 시설 (일간 5,000개 능력, 07년 가동개시예정), 3억\$
- 멕시코 Monterrey에서의 승용차용, 경트럭용 타이어 공장(BIRD 시스템 기반, 일간 8,000개, 07.7월 가동개시 예정), 2억 2,000만\$ 책정
- 브라질 Camacari에서의 승용차용, 경트럭용 타이어 공장(일간 8,000개, 06년 말 가동 예정), 1억 6,000만\$ 책정
- 브라질, Santo Andre 현대화, 승용차용, 트럭·버스용, 농경용 그리고 off-the-road 타이어 시설 현대화, 1억\$ 책정
- 06년 중반까지 Hofu 공장에서 소규모 래디알 earthmover 타이어 연간 생산능력 50% 확대, 1억 3,000만\$ 책정
- 일본 Hikone에서 BIRD 시스템 설치 (2년~2년 반 소요 예정), 이를 활용한 자동차 타이어 생산은 07년 초까지 일간 12,000개를 기록 예정, 투자예정액 미공개

• 중국 Shenyang에서의 공장 설립(스틸 타이어 코드 제조, 07년 말까지 일간 70톤), 9,430만\$ 책정

❖ 굿이어사

- 중국 Dalian의 공장에서 07년까지 런플렛 승용차용 타이어 생산 시설 설비 (11년까지 연간 20만개 생산 예정), 1,800만\$ 책정
- 06년까지 브라질 Americana와 Sao Paulo에서 중형 래디알 트럭용 타이어 시설 50% 확충, 1억 2,000만\$ 책정

❖ 금호 타이어

- 중국 Tianjin에서의 승용차용과 경트럭용 타이어 공장 (07년까지 연간 5백만개, 장기적으로 연간 1,250만개 까지 확대할 예정), 1억 8,500만\$ 책정

❖ 미쉐린

- 프랑스 Tours 공장에서 트럭용 타이어를 생산 설비 확대 (07년까지 약 25% 확대, 1백만개 생산예정), 프랑스 Poitiers 공장에서의 타이어 설비 단계적 철수 포함, 6,530만\$ 책정
- 브라질 Campo Grande에서 earthmover 타이어생산 설비 (07년 후반기 가동 예정, 연간 4,0000톤의 생산능력, 55,000톤까지 확대 예정), 2억\$ 책정
- 폴란드, Olsztyn에서의 Stomil Olsztyn S.A. 타이어 설비에서 승용차용, 경트럭용 타이어 생산능력 확대 (약 3년간 3백만개 까지), 3억 3,000만\$ 책정

- 러시아 Davydove의 부지에 승용차용 타이어의 생산을 3배로 증강(05년말 까지 일간 6천개 예정), 2,200만\$ 책정

❖ 피렐리

- 중국 Jinan의 Roadone Tyre Co.Ltd와 합작하여 중국에 래디알 트럭용 타이어 기업 설립 (3년 소요 예정), 1억 8,000만\$ 책정
- 루마니아, Slatina에서 승용차용 타이어 생산 설비 설립 (3년 소요, 주로 고성능 승용차용 타이어 생산), 1억 3,000만\$ 책정
- 브라질 Gravatai 승용차용 타이어 공장의 부지에서 스틸 래디알 트럭 타이어 시설 설립과 브라질 Bahia의 최근 오픈된 승용차용 타이어 공장 생산능력 확대, 1억\$ 책정
- 합작 파트너인 콘티넨탈 A.G.사와 함께 Slatina에서 스틸 타이어 코드 설비 설립 (약 3년 안에 연간 생산 30,000톤 예정), 4,900만\$ 책정

❖ 스미토모 타이어

- 태국 Rayong 지방에서의 승용차용 타이어 설비 설립(700만개로 동사의 가장 큰 생산시설이 될 예정, 일간 생산능력은 07년에 약 12,000개로 시작해서 2010년까지 22,000개로 확대 예정), 투자예정액 미공개
- 중국과 인도네시아에서의 부지에서 승용차용 타이어 생산 위한 신규 생산 능력 확대(10,000개까지), 5,100만\$ 책정

❖ 도요타이어

- 일본 Kuwana 공장에 큰 직경의 승용차용과 경트럭용 타이어의 연간 생산 확대 (연말까지 각각 100만개와 12만개 예정), 2,500만\$ 책정

❖ 요코하마 고무

- 동사 Philippines Inc 자회사에서의 승용차용과 SUV 타이어 생산 능력 50% 확대(연간 생산능력은 06년 9월까지 700만개로 증가시킬 예정), 9,370만\$ 책정
- 태국 방콕근처 트럭타이어 공장에서 승용차용과 경트럭 타이어 시설 확대 (06년말이나 07년초까지 140만개의 생산능력), 1억 900만\$ 책정
- Thai 공장에서의 래디알 트럭용 타이어 생산능력 두배로 확대(07년까지 70만개 예정), 투자예정액 미공개

〈미국 「Rubber & Plastics News」, 05. 9월호, 유럽 「European Rubber Journal」, 11·12월호〉